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우리의 앞날을 하느님께 온전히 맡길 때 마음의 깊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몇 년 전, 저는 《La suerte está echada》라는 아르헨티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라틴어 표현인 ‘Alea iacta est’에서 유래하며, 한국어로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뜻입니다. 주사위를 던진 뒤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화는 삶의 여러 어려움을 겪는 두 이복형제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직장을 잃고, 관계가 깨지고, 실패를 경험하는 등,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이 나를 거스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형은 자신이 ‘무파(mufa)’, 즉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일은 언제나 자신에게만 일어난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반면 동생은 형이 현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동생은 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세상이 다 너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던져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역시 자신을 ‘무파’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처, 어려움에 너무 깊이 사로잡히다 보면, 결국 모든 현실을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것을 전하고, 언제나 나쁜 것만 바라보며, 삶의 더 넓은 지평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혼자 견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운이나 실패, 상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는 하느님의 손안

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로마 13,14)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초대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호를 긋는 단순한 행위 안에서도, 우리의 시작과 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이 다시 삶의 지평을 되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환대로, 우리의 미소로, 그리고 우리의 희망으로 말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2025년 7월 29일 회년 행사에서 디지털 선교사들과 가톨릭 인플루언서들에게, “일상의 모든 관계 안에서 분열을 넘어 참된 화합과 사랑을 실천하라”는 깊은 초대를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디지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친교와 화합의 실천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친교와 화합의 실천:

- 편 가르기와 양극화된 사고를 멈추고,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 자극적으로 분열을 부추기는 논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 단순한 정보의 전달과 소비를 넘어, 진정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만들어 가야 한다.
-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고립된 이들을 다시 연결하며, 새로운 사랑의 그물을 짜야 한다.
- 온라인 공간에서도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말과 행동을 통해 따뜻한 온기와 희망을 나누어야 한다.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사제, 수도자 연수



8월 19일(수)~21일(금)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민족화해센터에서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사제, 수도자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특별히 DMZ를 방문하여 분단의 역사와 실형민들의 아픔을 느끼며 민족 화해와 평화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앞에서 수용자와 출소자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사제, 수도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9월 7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가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부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이승민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순교자들은 조용히 숨어 지내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쪽을 택하셨다.”라며, “봉사의 현장에서 절차와 규정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굳어버리는 습관에 안주하지 말고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손을 내밀어보는 용기를 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교정사목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길음동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9월 12일(토)~13일(일) 길음동성당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교정사목 신부들은 강론을 통하여 “교정사목은 범죄 피해자, 청소년과 성인 수용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후원자들의 후원과 사랑으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며, 노부모의 손에서 자란 초등학생이 잘못된 선택으로 소년원에 들어간 사연, 고아로 자라 괴롭힘 속에서 구치소를 전전하다가 교정사목 쉼터에 오게 된 형제님, 출소자 가족과 피해자 가족들의 사연 등 교정사목의 활동을 소개하며, 감옥에 갇힌 이, 범죄 피해자 가족과 출소자들에 대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하셨습니다. 후원회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길음동 성당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과 수녀님, 신자분들, 그리고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이사 49,5)

남궁다미 아녜스 / 고봉중고등학교 봉사자

소년원 미사 때 영성체를 영하고 들어온 저에게 어느 아이가 물었습니다.

(흔히 아이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무슨 맛이요??"

그날은 저도 모르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맛, 은총의 맛."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런 맛도 있어요?!!!"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너도 그 맛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천주교 반에서 세례를 받고 퇴소하였습니다.

부디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느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고봉중고등학교(소년원)에 가는 이유입니다.

비록 아이들이 여길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 하느님을 알고 그분께 관심을 두고 그 아이의 삶에 하느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힘내어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의 배우자가 살레시안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봉사를 시작한 지 십수 년째입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그 아이들이 교화되느냐?’ 주변 지인들은 묻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 달에 몇 번의 만남으로 그 아이들이 무엇이 달라질지. 게다가 그 아이들은 어찌하면 제가 그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아이들 또한 저를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모든 답은 하느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한다기보다 하느님께서 저를 도구로 써 주시기를 말입니다. 그저 하느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그 아이들의 삶에서 하느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분명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찌하면 저도 방황했던 10대 청소년 시절, 우연히 친구를 따라 미사에 가지 않았더라면,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더라면 제 삶은 어땠을까. 누구나 방황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신앙이 주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하느님의 돌보심에 의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소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느님께서 그 아이들에게도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이사 49,5)

“사랑의 방식 무엇이 정답일까?”



이순영 강사 / 더품다교육공동체

2번째 글을 올리네요. 반갑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제 자식의 말은 무조건 잘 들어주는 엄마가 될래요”

이번에는 제가 교육 과정 안에서 만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인 아영이(가명)가 엄마와 늘 함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만난 아영이는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혼자 놀았습니다. 활동적인 놀이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영이는 그런 놀이에도 크게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영이가 대인관계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안에서 보인 아영이의 모습은 혼자 작업하는 것과, 모둠 안에서 작업하고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고 대인관계도 잘 해냈습니다.

아영이가 학교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들어보니 2~3명의 친구 하고 지내고 크게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만 오면 엄마 껌딱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그런 아영이의 말을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들어줬지만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버겁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어머님이 진짜 잘 들어주시는가 봅니다. 저라도 엄마와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재택으로 집에 작업실을 만들고 일과 양육을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영이에게 혼자서 공부를 해보라고 했지만 혼자 뒤 보니 TV 시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그건 안 되겠다 싶어 둘 다 작업실로 모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영이는 공부를, 어머니는 일을 했는데 같은 공간에 있게 되니 아영이가 계속해서 말을 걸어 어머니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에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린 어머니의 결론은 학습은 학원에 맡기고, 그 사이 어머니는 일할 시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영이는 곧 흥미를 잃었고 집에서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하니 학원 보내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아영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학원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엄마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너무 안 들어 줬어요. 저는 아영이한테 잘 들어주는 엄마, 함께 해주는 엄마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내 발목을 내가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때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영이와 대화를 통해 상황을 말하고 조율해 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영이라면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친구였거든요. 내가 자녀일 때 받고 싶었던 사랑이 아닌 내 자식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려울 땐 부모인 나도 솔직히 표현해도 됩니다.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나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부모로 더 좋은 자녀로서요.

“아빠가 못했던 것들 너만큼은 다 하게 해줄게”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으로 현욱(가명)이를 만났습니다. 20살인 현욱이는 겉으로 보기에 과묵했지만,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한 친구였습니다. 프로그램하면서 이곳에 왜 오게 되었는지 조심히 물으니 바이크 무면허로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선생님은 현욱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가 무엇이냐 물으니 그 친구는 반달 웃음을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300만 원 대 고가의 바이크였습니다. 300만원이 고가라고 하면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건 고가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대를 생각하면 제 기준에서는 큰 금액대의 바이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샀을까 궁금했는데 현욱이는 아버님이 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물음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면허도 없는 네게 바이크를 선물하셨다고? 내가 부모님이라면 일단 위험해서 안 된다고 말했을 거고, 그래도 사주고 싶다, 타고 싶다고 하면 면허를 딴 상태가 되었을 때 해줬을 것 같아.” 현욱이는 바로 답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돈 때문에 못 한 게 많으셨대요.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 참아라 안 된다고 해서 저를 낳았을 때 제게 뭐든 다 해주겠다고 다짐하셨대요. 처음에 안 된다고 했던 것들도 결국 아빠는 다 해주세요. 저는 그걸 알아요.”

유년 시절 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 했던 것들이 많아 내 자식에게는 다 해주겠노라고 다짐했던 현욱이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돈을 버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허락이 어려웠다면 그건 현욱이 부모님 역시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이크를 선물했고 자녀는 무면허로 소년 수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내 사랑의 표현이 아이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된다면 멈출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절제도 사랑의 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키워나가고 애정을 가지고 적은 돈이라도 동참할 것입니다.

김OO / 기쁨과희망은행 창업대출자

지난 7월 20일 창업자금 심사에 합격하고 20년 이상의 자동차 관련 현장 경험과 전문 자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365일 쉼 없이 발로 뛰며 도로 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동차 긴급출동, 견인 서비스 창업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오랫동안 종사하던 업종이라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이고 무엇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프로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시작했습니다. 단 순해 보이지만, 절대 단순하지 않으며, 간절하면 이보다 좋은 직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은 생각으로는 성공이 어렵습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고, 능동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업은 이론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비, 답변, 전문성, 멘트, 믿음 등 모든 것들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다른 이들과의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자금의 준비가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교정사목에서 도와주시고, 장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렵던 자금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여러 소중한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해지고, 책임감이 커졌고, 더 세밀하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선은 계절적인 업종인지 보니, 날씨와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금매입으로 이윤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영업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 자신이 있기에 판매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지금도 이어가는 중입니다. 성실히 하면 결과로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간절하면 다 이루어 집니다. 그 간절함의 차이가 승부를 가릅니다.

창업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창업에 관해 연구하여 준비하고, 노력하면, 자신이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분야를 잘 들여다보고, 연구해야 합니다. 전문화된 시대에 절대 안이하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차별화와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기쁨과희망은행 창업 대출 신청 금액을 전액 받지 못해 부족분이 정말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모두 키워나가고 애정을 가지고 적은 돈이라도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얼굴 없는 만남

우린 얼굴이 아닌
마음으로 먼저 인사를 했네요

마음을 가득 담은 아름다운 글 속에서
당신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담긴 가슴 아픈 미소를
때로는 애정이 가득 담긴 따뜻한 미소를
때로는 행복에 겨워 웃으며 우는 눈물을
열린 문으로 엿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꽃을
먼저 피워
울릴 수 있었던 건
얼굴 없는 만남이었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Love each other'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안을 전합니다.

2026. 가을의 문턱 9월초에....

울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11월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광탄 나자렛 묘원에서 사형집행으로 목숨을 잃은 사형수 형제들을 위한 위령미사 및 연도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뜻 깊은 자리에 후원회원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 ▶ 일시 :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남산예장버스환승센터)
- ▶ 장소 : 성요셉1군단성당(고양시 덕양구) → 광탄 나자렛 묘원
- ▶ 준비물 : 편한 복장과 신발, 따뜻한 물, 모자 외
- ▶ 접수 : 10월 16일(금) 마감 ▶ 전화접수 : 02-921-5094 / 010-3732-5093 ★ 문자 접수 가능 ★
- ▶ 회비 : 1만원 (점심 제공) / 우리은행 1005-903-307477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1. 전화접수(성함/연락처/주민번호) 2. 실명 입금 확인 3. 접수 확정

* 주민번호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행사 알림

- 10월 9일(금)~10일(토)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성지순례
- 10월 12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10월 12일(월)~14일(수)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인천구치소
- 10월 17일(토)~18일(일)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봉사자 피정 / 음성 사랑의 연수원
- 10월 19일(월)~22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 10월 23일(금) 사회사목국 전체 직원 야유회 / 가평 성빈센트환경마을
- 10월 23일(금), 26일(월)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 10월 25일(일)~26일(월) 해밀(범죄 피해자 가족) 가족 야유회 / 광주 자비의메르세다리아스 피정의집
- 10월 26일(월)~30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남부교도소
- 10월 29일(목)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 주교좌 명동대성당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6/08/16~26/09/11)

2026년 8월~9월에는 이금순 엘리사벳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혜인, 이복동 아녜스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 교정사목 휴대전화 010-3732-5093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